



신청사 앞에 걸린 우산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계단에 이경호 작가의 작품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Dear me'라는 제목의 이 작품들은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의 소통 프로젝트로 공무원들로부터 수집한 메시지를 서울의 이미지에 표현했으며 시민의 우산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냈다. 뉴스시애틀 기자



시민의 우산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계단에 우산을 소재로 한 설치작품이 걸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Dear me'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우산에 광화문 등 서울의 이미지와 함께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쓴 메시지들이 담겨 시민의 우산이 되겠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헤럴드경제



독거노인가구 가스 안전점검

2일 오전 서초구와 서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보건소 직원 등 10여명이 독거 노인가구를 방문해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